사 시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조대신문

SINCE 1946 HUMANITY BEYOND the FUTURE 휴머니티, 혁신의 미래 ＼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신문방송사
The Chosun University Press

www.chosun.ac.kr/chnews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I 1182호

미리보기
2 심층보도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폐 집회
3 사회부 기획 – 은둔 청년을 위한 '광주청년미래센터'
4 조대인을 만나다 – 종교 분과 동아리 'CCC'
5 체험 –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다

시험장 내 AI 안경 착용 적발…교육부 '비상'

지난달 3일과 10일 열렸던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의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시험 도중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AI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의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학교 모두 불합격 처리와 향후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한 상태이며,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논술 입시 적발 건은 수능과 달리 대학별고사로,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해당 대학에만 적용된다.



▲메타에서 출시된 AI 안경 (출처=강원도민일보)

이달 19일에 시행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교육부는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안내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에 대해서는 비공개됐는데, 감독관의 적발 방법이 미리 알려지면 이를 피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대응 지침서에 대해 교원단체는 책임 전가라며 반발 의견을 내세웠다. 교원단체는 AI 안경을 식별할 수 있는 전문 장비나 명확한 판별 기준 없이 감독관 개인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 대응까지 모두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 전가라는 비판이다. 또한, 명확한 대응 절차와 감독관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I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는 입시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토익(TOEIC)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같은 공인 어학 시험장과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 시험장에서 더 많은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 자격시험 필기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총 5건이었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감독관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안경을 식별하는 '인공지능 인스펙터' 감독진 추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의 AI 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3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박시언 기자
0128sieon@naver.com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우리 대학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지난달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했다. 기존의 번호 앞에 붙어있던 ▲운림 ▲금남 ▲봉선 등의 지역명이 사라졌고, 우리 대학 내부로 들어오는 버스 역시 노선이 전면 개편돼 기존 버스들 대신 새로운 노선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시행됐다. 이는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도시 확장에 따른 생활권 변화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한 조치다. 특히 전체 시내버스 노선은 103개에서 115개로 12개 노선이 늘었고, 하루 운행 횟수는 8,394회에서 8,929회로 535회 증가했다.

개편의 핵심 내용은 신속성 확보와 배차 간격 단축, 중복 구간 정비 및 환승 편의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터미널 등 주요 시설 간 직선화 노선 확대 ▲장거리 인기 노선과 급행 노선 도입 ▲신규 주거단지 및 대중교통 소외 지역 19개 지역 노선망 확대 ▲외곽 지역 통합·계통분리 등이 있다.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학을 종착지로 하는 버스노선도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 학교 노선에 포함됐던 ▲57번 ▲61번 ▲87번 ▲419번 버스는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반면, 신규 노선으로 해오름관을 종착지로 하는 노선은 ▲(급행)03번 ▲27번 ▲30번 ▲37번 ▲34번 ▲45번이, 조선대학교병원은 74번, 그리고 조선대장미원 정류장에는 59번이 신규 개편되면서 기존 4개 노선에서 8개로 증가했다.

광주특별시는 노선 개편에 따른 차량 재배치로 일부 버스는 노선 유형과 차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일부 차량의 색상 불일치에 유의하고 탑승 전 노선번호와 행선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편된 버스 노선 안내판 뒤로 이전 노선 마지막 운행을 앞둔 버스들 (지난달 30일 촬영)

진유철 기자
wlsdbcjfgus@naver.com

우리의 전통을 만나는 '김치 축제'

제33회 광주 김치 축제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광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단순히 김치를 맛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예술 ▲공연 ▲체험 등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김치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신나는 음악과 함께 다양한 김치의 미식을 경험하게 하는 ▲광주 김치 식탁 천인의 밥상 ▲김치명인 라이브쇼 ▲압도하라! 김치 파티도 진행됐다. 22일에는 전국적으로 개최된 김치 경연대회의 수상자도 발표했다.

김치 축제는 전통 김장 문화부터 요즘 추세를 따라가는 김치 콘텐츠까지 김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전국의 김치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그들에게 김치 비법을 배울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올해 김치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매년 열리는 행사인 만큼 내년 이 시기에 열린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신혜진 기자
tlsgpwls12345@naver.com

금융권 16곳 침해사고, 보안 관리 체계 전면 강화 추진

미흡 사항 적발에 따른 보안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 착수

지난 9월 말부터 금융권 해킹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16개 금융회사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으며, 약 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 점검을 시행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 관리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2차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침해사고 조사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번호 등 부정 결제에 직접 악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잇따른 해킹 사고에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뿐 아니라 대출모집인 조회 서비스와 임직원 업무 지원 시스템 등 외부에 노출된 전산시스템의 보안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증 절차나 접근 권한 관리가 미흡하면 공격자가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 보안 점검에서도 ▲최신 보안 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종료된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체계 미구축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외부와 연결된 시스템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인증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간 위협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접점이 넓은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점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보안 강화로 이어지려면 취약점 발견 이후 보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으로 위장한 문자와 전화에 유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보안 관리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혜원 수습기자
hyewon@chosun.ac.kr

‘심리 상담’ 공동 업무로 전환, 전문성은 누구에게?

개정안 철폐 요구를 위한 집회와 캠페인 개최

한국임상심리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를 ‘전문성 수호 총력 대응 주간’으로 선포했고, 전국 주요 지역에서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가 열린 이유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 ▲임상심리에서 각자 개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리 상담 사업 수행’ 업무가 네 직역 모두에서 가능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 집회 모습

이번 개정안은 심리 상담의 전문성과 직역별 교육, 수련 체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보건복지부는 심리학의 학문적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과 심리 상담 서비스의 수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또한, “엄격한 교육과 수련 없이 업무를 획일화하려는 방법은 상담 심리를 전문적으로 공부해 온 사람들의 시간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광주전남권역 집회에는 우리 대학 상담심리학부 구성원을 비롯해 ▲전남대 ▲동신대 ▲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 철회를 위해 가톨릭대 심리학과를 시작으로 서울대부터 전남대까지 관련 학과에서 ‘심리 상담 공통 업무화 반대 공동 시국선언’을 내고 있다.

우리 대학 상담심리학부 대학원생 최승우 씨는 “심리 상담은 오랜 수련을 거쳐 만들어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며, “심리 상담 공통 업무를 규정하기 전에 각 직역의 수련 내용과 역량을 검토하고, 업무 범위와 수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혜진 기자
tlsgpwls12345@naver.com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온 두 도시의 만남

지난달 6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광주-함부르크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권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 ▲예술 관련 장소를 양국 참가들이 함께 방문하며 인적 교류가 이어졌다.

광주-함부르크 청년 교류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양 도시가 번갈아 상대 도시를 방문해 직접 소개하는 방식으로, 작년에는 광주 청년들이 함부르크를 찾았고, 올해는 함부르크 청년 16명과 광주 청년 15명이 광주에서 만났다. 우리 대학 공진성(정치외교학) 교수의 연결로 이어진 해당 교류에는 우리 대학 학우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 교류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교류의 시작부터 예산 확보와 계획 등 모든 과정을 스스로 조직하는 특별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국제 교류의 특성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함부르크 청년 측 리더 Kjell은 “독일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삭감되며,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더 많은 후원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기부금도 일부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전 교류의 결과물인 ▲글 ▲사진 ▲전시회 준비를 통해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광주-함부르크 청년 교류 단체사진 (사진=Jan Schneidereit)

이들은 북구청에서 신수정 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일대 ▲무등산을 방문하며 광주의 문화와 자연을 경험했다. 13일에는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와 유럽언어문화학부의 독일어문화학전공 수업에 참여해 EU에 대한 발표와 독일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Kjell은 “이 교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교류의 특별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며 교류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진유철 기자
wlsdbcjfgus@naver.com

‘127만 관중 신기록’, 야구장 밖 지역 경제로 열기 잇는다

‘체류형 스포츠 관광 플랫폼’ 진화 목표

2026년 프로야구 정규시즌에서 KIA 타이거즈가 구단 역대 홈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썼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달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2만 500명의 만원 관중을 기록하며 시즌 누적 관중 127만 8,888명을 달성했다. 이는 시즌 37번째 매진으로, 종전 최다 기록인 2024 시즌의 125만 9,249명을 넘어선 수치다. 이로써 KIA 타이거즈는 2017년과 2024년, 2025년에 이어 구단 통산 네 번째로 100만 관중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정규시즌을 3위로 마무리하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시즌 후반까지 이어진 팬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도 함께 주목받았다.

이번 흥행의 배경에는 기존 팬들의 꾸준한 응원과 선수들의 활약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 선수 등 주요 선수들의 활약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구단 역시 이번 성과를 팬들의 성원과 선수들의 활약이 어우러진 결실로 평가했다. KIA 타이거즈 구단 관계자는 “시즌 내내 보내주신 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구단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끈 스타 선수들의 활약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응원 문화가 신규 관람객 유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구단은 이러한 흐름을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이어가는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마케팅 관계자는 “야구 관람을 중심으로 지역의 ▲식음료 ▲관광 ▲문화 체험을 촘촘히 연계하는 ‘체류형 스포츠 관광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 구단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며, “앞으로도 팬들에게 한 차원 높은 관람 시설을 제공하고, 매년 가을야구에 도전할 수 있는 강팀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KIA 타이거즈의 누적 관중 신기록은 팬들의 응원이 만들어 낸 성과인 동시에 구단과 지역사회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선수들의 활약과 마케팅 노력이 관람 환경 개선과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2026 시즌 챔피언스 필드를 가득 채웠던 가을야구의 뜨거운 열기는 다음 시즌에도 지속 가능한 흥행의 기반으로 이어질 것이다.

홍혜원 수습기자
hyewon@chosun.ac.kr

사 령

• 임명 : 홍혜원(일본어·2) 수습기자

2026년 10월 1일

〈조대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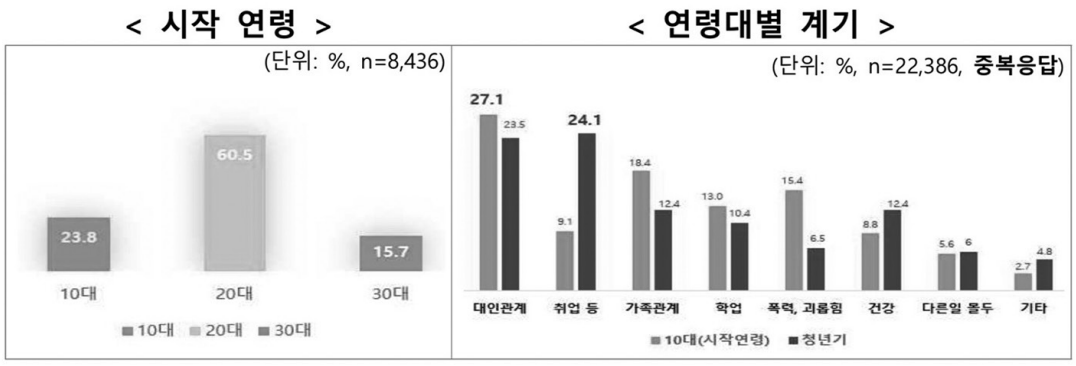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 총장 김춘성 / 편집인 겸 주간_ 지병근
편집국장_ 여정인 / 인쇄인_ 박만수
주 소_ 614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선대길 146
E-mail : chnews26@daum.net / 행정실_ 062-230-6166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그들의 회복과 사회 참여를 돕는 광주청년미래센터

'쉬었음 청년'과 '니트(NEET)족',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청년' 등 최근 청년 앞에는 '고립·은둔'과 연관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용어 사용이 늘어나는 현상은 요즘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소외감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9-39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은 2021년 기준 53만 8,000명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했고, 이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다만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수치는 모두 추정치에 불과해,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의 고립·은둔 시작 시기 및 이유 (출처=보건복지부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광주청년미래센터 내부의 모습

'은둔형 외톨이'란?

흔히 이야기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어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회적 관계망을 단절하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며 상당 기간 이상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은 ▲자발적인 고립 선택 ▲사회적 참여에 대한 회피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고립·은둔이 6개월 미만이라면 단기 또는 일시적 은둔이라고 보지만, 6개월을 넘어간다면 만성화 상태로 본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현재 청년의 고립·은둔의 문제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로 삶이 지속된다면, 장년에서 노년까지 이르는 시기까지도 고립된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고립된 삶이 심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기에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왜 은둔 생활을 선택했는가?

은둔형 외톨이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이다. 그중에서도 남성과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업과 취업 그리고 인간관계 등 직접적인 이슈가 이들의 은둔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은둔 생활을 선택했을까.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 청년이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35%)'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신규 채용 대신 경력 채용을 늘리며 노동시장에 입문하는 청년들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반복된 구직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일자리도 은둔의 가능성을 높였다. 취업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다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끝나지 않는 구직 활동에 지쳐 고립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실제로 실업자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고립 확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구직 1개월 차 실업 청년의 은둔 확률은 약 15.1%이지만, 14개월로 길어지면 약 24.1%로 상승하고, 42개월이 지나면 50%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일자리 이외의 원인으로는 대인관계 문제와 ▲학교폭력 ▲가정학대 등의 트라우마나 상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한편, 조사 결과에서는 '기타(45.6%)'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측면은 청년 세대의 고립·은둔 문제가 하나의 명확한 이유가 아닌 복합적으로 엮여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고립은 개인의 노력을 통한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즉 청년의 고립·은둔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은둔 청년을 세상 밖으로: 광주청년미래센터가 건네는 손길

2023년도에 실시한 '광주광역시 2차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대부분은 20·30대로, 이들의 은둔 계기는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에서는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9년에 전국 최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22년에는 지자체 최초로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설립됐다.

현재는 지난 9월 21일 이후 가족 돌봄 영역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통합한 '청년미래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센터의 지원 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광주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지원팀 김지윤 주임과 인터뷰를 나눴다.

김 주임은 2022년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전국 최초의 센터이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광주청년미래센터의 지원 체계는 의뢰에서 시작된다. 의뢰는 당사자나 지인, 가족을 통해 센터에 연결되기도 하고, 기관을 통한 연결로도 이뤄지고 있다.

이후에는 장애 없이 3개월 이상 은둔 고립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접수 면접을 통해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 대상과는 기본 12회 정도 상담이 이뤄지고 ▲생활 습관 개선 ▲대인관계 향상 ▲사회기술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앞의 단계를 마치면 일 경험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당사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김 주임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아무튼, 출근'이라는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향상 이후 진행되는 단계로, '아무튼 회사'라는 가상회사에 약 한 달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센터에 출근해 사람들 속에서 함께 활동하며 사회적 규율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운다.

김 주임은 "초반에는 센터에 상담받을 때는 눈도 쉽게 마주치지 못했던 당사자가 점차 자주 센터에 찾아오고, 또 취업해서 퇴근 이후 센터를 갑자기 방문했을 때 뿌듯하고 대견한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은둔 청년들을 사회와 연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당장 그들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의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로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 '두더집'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씨즈'는 '일상 회복'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다. 그들이 낮과 밤을 바꿔보고 목욕이나 요리, 세탁 등의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시작으로 집밥 모임, 텃밭 가꾸기 등을 하면서 일상의 건강한 회복과 소통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사회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서도 ▲일상 회복 ▲진로 탐색 ▲일과 자립의 3단계 순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돈을 버는 '일'의 행위를 우선하지 않고 일상적 경험을 먼저 쌓도록 돕고 있다.

센터의 도움으로 일상적 회복이 진행됐다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원 활동을 완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고립 생활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만약 2년을 집에서 있었다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3년이 걸려요"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더라도 모든 당사자의 사회 복귀가 쉬운 것은 아니다. 김 주임은 "은둔의 기간이 길수록 회복의 기간은 더 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프로그램 이후에 '재은둔'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렇듯 은둔형 외톨이 청년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면서, 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동반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김 주임은 "청년미래센터가 당사자들이 사회에 나오기 위한 연결고리이자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박시언 기자
0128sieon@naver.com
진유철 기자
wlsdbcjfgus@naver.com

총동아리연합회 종교 분과 'CCC' **신 은 혁** 대표

'CCC' 대표가 말하는 종교 활동의 원칙과 학우들의 대처법



신 은 혁 대표
(음악교육·3)

대학은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학우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간이다. 종교 활동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설문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유받거나, 특정 단체의 명칭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모임으로 유도하는 상황을 두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우들도 있다. 이들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학우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활동은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 또한, 원치 않는 포교를 마주할 때 학우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학 총동아리연합회 종교 분과 소속 동아리 CCC 신은혁(음악교육·3) 대표에게 CCC의 주요 활동과 주의가 필요한 포교 방식, 학우들을 위한 대처법을 들어봤다.

CCC의 정식 명칭은 '한국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는 개신교 선교단체다. 현재 CCC는 ▲아침 QT ▲찬양 ▲말씀 나눔 ▲정기 예배를 비롯해 방학 중 수련회와 해외선교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 대표는 교내 전도 활동 시 소속을 먼저 밝히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새 학기에는 동아리 홍보를 위해, 수업 전 담당 교수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뒤 진행하며, 정기적인 노방전도에서도 소속을 밝히고 짧게 책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동아리원들에게도 전도 활동을 시작하기 전 소속을 명확히 알리도록 안내하며, 활동 시에는 총동아리연합회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이 찍힌 목걸이를 항상 착용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전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닌 권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 활동에 관심이 없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원치 않는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도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강요나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CCC 동아리 수련회 활동 (제공=CCC 동아리 대표)

또한, 특정 종교 권유를 마주했을 때 관심이 없다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자리를 즉시 피할 것을 당부했다.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요하게 말을 걸거나 따라오는 경우 상황에 따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미 연락처를 제공했거나 모임에 참여한 뒤 부담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원치 않는 연락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교내 포교로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학우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CCC 역시 학우들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적인 종교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종교 활동에 나서는 구성원들부터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종교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는 궁금한 점을 충분히 질문하고 고민한 뒤 스스로 신앙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종교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교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 역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종교는 새로운 만남과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원치 않는 권유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종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대학에서 종교 활동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위해 투명한 소통과 개인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

남대희 기자
ndaeh0823@chosun.ac.kr

교육방송국 'CUEB' **김 민 배** 실무국장

자유의 기수, 정의의 젖줄, 진리의 샘터 'CUEB'



김 민 배 실무국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2)

조대신문, 조선월드와 함께 우리 대학 신문 방송 3사를 이루는 교육방송국은 대학 축제 중계부터 자체 영상 제작과 가요제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방송국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교육방송국 김민배(미디어커뮤니케이션·2) 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교육방송국 국장

김민배 국장은 우리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교내 언론사를 고려하고 있었다. 수습국원 모집 요강을 듣고 지원해 수습국원부터 제52기 실무국장까지 맡아 교육방송국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장으로서 콘텐츠 제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콘텐츠의 전반적인 틀과 흐름을 조율한다.

교육방송국은 ▲기술부 ▲보도부 ▲아나운서부 ▲제작부로 이뤄져 있으며, 기술부는 콘텐츠 촬영 및 편집, 보도부는 뉴스 기획 및 제작, 아나운서부는 콘텐츠 출현 및 행사 진행, 제작부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할을 맡고 있다.

교육방송국 주요 활동

방송국은 각종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동시에 한 해 동안 두 번의 큰 행사를 진행한다. 1학기에는 우리 대학 장미축제에서 자체 기획 게임과 오픈스튜디오 부스를 운영했고, 2학기에는 '둘셋가요제'를 진행한다. 둘셋가요제는 단독으로 진행하는 만큼,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둘셋가요제 전 준비 사진 (제공=교육방송국 실무국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그는 "가요제 준비 전, 국원들과 다 같이 밤을 새웠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시간이 다 같이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는 과정인 것 같기에 힘듦과 뿌듯함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지'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회수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쓸 것 같지만 너무 매료되다 보면 국원들의 신선한 기획에 제약이 걸리는 것 같았다"며, "재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웃음도 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국원들의 기획을 최대한 결합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방송국만이 가지는 강점과 한계는?

그는 방송국만이 가지는 강점으로 '정보 전달 매체의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또 "조대신문과 영자신문사는 정보를 전달하는 주 매체가 글이지만, 교육방송국은 영상, 카드뉴스, 숏폼 등의 매체로 학우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번 제작해야 하는 콘텐츠 형태가 달라지니까 정기적인 영상 업로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재 매달 긴 영상을 1회 이상 올리는 목표로 실행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먼저 저희 교육방송국이 제작한 콘텐츠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콘텐츠는 수많은 피드백과 수정 과정을 거쳐 비로소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진다"며 "끝까지 하나의 콘텐츠를 완성해 주는 우리 52·53기 국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신혜진 기자
tlsgpwls12345@naver.com

대학생도 '출근'해요, 국가근로장학생의 하루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며 배우는 장학금 그 이상의 가치

대학생의 하루는 강의실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는 시간 외에도 원활한 대학 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는 학우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가근로장학생(이하 근로장학생)이다. 현재 나는 우리 대학 디지털교육지원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며, 강의실 밖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며 장학금도 받고, 실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근로장학생의 하루를 알아보자.



▲디지털교육지원팀 사무실 입구

디지털교육지원팀은 주로 ▲출판 업무 ▲사이버 캠퍼스 관리 ▲사업·공모전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많은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는 담당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게 근로장학생의 주된 업무다. 주문받은 인쇄물을 포장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찾으러 올 때 전달하는 일이다.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준비한 뒤, 내용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진행한다. 인쇄물을 만드는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쇄물 의뢰부터 의뢰자가 결과물을 받는 그 순간까지 정확한 확인과 꼼꼼함이 필요하다.

또한, 인쇄물에 기재될 내용 편집을 보조하거나 교정·교열을 확인하는 업무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전달받은 내용으로 바로 제작하는 것이 아닌, 편집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확한 형식과 구성으로 이뤄졌는지, 오탈자나 띄어쓰기에 문제가 없는지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소 신문을 직접 편집하고 만들며 교정·교열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문을 만들고 난 후 하나 둘 놓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아쉬움이 컸다. 그런 실수가 있었기에 근로장학생으로서 실제 출판 업무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게 됐고, 이는 지금 신문 발행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는 근로부서 업무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어디서도 접하기 어려운 경험을 직접 제공받고 있다. 전공에서 글의 구조나 한글 맞춤법 등을 배우는 것과 실제 인쇄물을 검토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경험이다. 이론으로 접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지 연결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인쇄물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편집과 제작, 검토와 발송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된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

대학생에게 장학금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원활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등록금부터 식비와 교통비, 강의에서 사용하기 위한 교재비 등 꽤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 근로를 통해 발생한 장학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다. 동시에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근로장학생의 장점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를 통해 얻는 분명한 보상이면서, 실무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맡은 업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역시 큰 의미가 있다. 대학생이자 근로장학생으로 보내는 하루는 장학금 이상의 경험으로 남는다.

남대희 기자
ndaeh0823@chosun.ac.kr

유물의 가치를 더 빛내는 것은

최근 뜨거웠던 '국중박 분장놀이'에 대해 SNS나 TV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 분장 놀이 대상 수상자는 '백자 잉어 모양 연적' 분장을 한 전은슬 씨로, 275팀의 경쟁을 뚫고 1등에 올랐다. 해당 연적 분장 이외에도 '반가사유상'과 '청동방울' 등 다양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들이 특별하고 기발한 해석으로 등장했다. 이번 상반기, 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해당 유물들의 실물을 직접 관람해 봤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 국립 박물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세계 박물관 연간 관람객 순위에서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한 곳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수는 약 40만 3,000개로, 이 유물을 다 보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방문 전에 대표적인 유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색해 본 후, 해당 유물을 중심으로 관람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관은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역사의 길 ▲서화관 ▲기증관 ▲조각·공예관 ▲세계 문화관으로 구성돼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선사·고대관에서는 '연천 전곡읍 전곡리 주먹도끼'와 '빗살무늬 토기'를 중심으로 관람했다. 구석기실에 들어가면 단독 유리 쇼케이스에 전시된 '주먹도끼'가 관람객을 반긴다. 이전까지 동아시아는 찍개 문화, 서양은 주먹도끼 문화권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전곡리 주먹도끼'가 발견되며 전 세계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게 실감이나 소름이 돋았다.


▲사유의 방에 전시된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의 모습

두 번째로 박물관 1층 중앙 로비에 있는 역사의 길에서 '경천사 십층석탑'과 '대동여지도'를 관람했는데, 유물의 크기가 무척 큰 만큼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다.

세 번째로 방문한 중·근세관에서는 '고려청자'와 '연꽃 넝쿨무늬 매병'을, 다음으로 기증관에서 '그리스 청동 투구'를 관람했다. 이 유물은 43평의 공간에 단독으로 배치돼 있어, 유물이 갖는 가치의 무게감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유의 방은 그 명성만큼이나 감동적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관이었다. 그 공간은 유리로 막혀있고, 하단에 설명이 적혀있는 일반적인 전시의 형태가 아니었다. 유물을 눈앞에서 느끼고 만지는 듯한 몰입도 있는 공간의 구성은 지금까지 가봤던 박물관 중에서 가장 특별한 관람의 경험을 남겨줬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360도로 돌아보며 구경할 수 있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유물 자체의 감동보다는 전시의 기획 방식과 공간 연출이었다. 유물은 그 자체로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관람객이 그 가치와 감동을 얼마나 온전히 느끼는지는 결국 전시를 어떻게 기획하고 연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자 달항아리'가 유리 쇼케이스에 전시된 것과, 하얀 한지와 눈 영상을 배경으로 전시된 것의 몰입함 정도가 다른 것처럼 말이다.

국립중앙박물관만큼 규모 있고 질 좋은 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이번 전시 방문이었다. 다양한 유물이 모인 이곳에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박시언 기자
0128sieon@naver.com

교수칼럼

다름을 아는 것이 지혜다



윤 일 홍 교수
(경찰행정학과)

성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인데, 진화심리학을 따르는 이들은 남성 몸에는 이 호르몬이 여성보다 열 배에서 스무 배 가까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수컷과 암컷 포유류는 번식 전략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암컷은 임신과 출산과 양육을 오롯이 떠맡으니, 좋은 유전자를 지닌 수컷을 고르는 것이 최선의 번식 방법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인간은 제도상 일부일처로 살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수컷 유전자의 흔적은 남아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대상의 다양성을 더 추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포유류의 암컷보다 더 복잡하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골반이 좁아졌고, 아기가 나오는 산도도 좁아졌다. 송아지는 뇌가 70% 넘게 자란 채 태어나 제 발로 서서 어미젖을 찾는다. 그러나 사람의 아기가 그만큼 자란다면, 머리가 산도를 빠져나오지 못해 아기와 산모가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뇌가 어른의 25%쯤 자랐을 때 아기를 낳는다. 눈도 뜨지 못하고 젖도 찾지 못하는 아기를 엄마 혼자 키울 수는 없다. 여성에게는 좋은 유전자를 포함해 자기를 사랑하고,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시기 동안 떠나지 않고 자기와 아기를 보살펴 줄 남성을 고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의 설명이다.

진화심리학은 남성이 여성의 성적 의도를 확대해석하도록 진화했다고 본다. 의도가 애매하면 있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성이 번식의 기회를 놓치면 느끼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확대해석하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진화심리학은 이런 판단의 치우침을 오류관리이론(Error Management Theory)으로 설명한다. 반면, 여성은 반대의 입장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유전자가 완성된 수렵채집 시기에, 남성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채 아이를 가진 여성은 남성이 떠나면 아이와 함께 죽을 가능성이 컸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 의도를 축소 해석하도록 진화한 까닭이다.

흔히 강간이나 성폭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혼자 있는 여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통계를 보면 가해자의 85%가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친척처럼 피해자가 알던 사람이었고, 모르는 사람은 9%에 그쳤다. 매체는 잔인한 사건만 보여 주기 때문에 성범죄가 다 그런 줄 오해한다. 성범죄가 반드시 낯선 사람의 물리적 폭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발생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것이 성범죄이지만, 그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상당수가 앞에서 말한 어긋남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화심리학이 제기하는 생물학적 원인이 성범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남성 편향적일 위험성이 있으며, 여성의 태도를 잘못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성이 여성의 성적 의도를 확대해석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남녀가 상대방의 의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름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그 다름을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삼지 않는 것 또한 지혜일 것이다.

서 석 대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인 지금,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강대의 난민 학생 지원 제도가 알려졌다. 난민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 제공과 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내 학생들도 입시 경쟁과 등록금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형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됐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다가온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수요가 몰리고, 일부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다문화 가정 우선 입소 제도를 두고 학부모의 우려가 나온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자녀·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도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배경이며, 문화의 차이와 사회 적응, 관계 형성 등의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역시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만으로 모두를 이해시킬 수는 없다. 다문화 가정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를 이유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가정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자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의 사정이 갖는 어려움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수준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의 고민을 부른다.

동일한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언제나 공정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또, 지원의 필요성과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배경만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면, 실제 이뤄지는 정책은 그 취지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를 지원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난민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다고 국내 취약계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국내 구성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해서도 안 된다.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그 사이의 균형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 특정 집단을 위한 지원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마련된 이유를 살피고 그에 맞는 결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일 것이다.

수 습 일 기

한 줄의 기사를 완성하기까지



홍혜원 수습기자
hyewon@chosun.ac.kr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기자라는 직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뉴스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 전달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언젠가는 나도 직접 취재하고 글을 써서 세상에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조대신문에 지원한 것도 막연하게 품었던 꿈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이 많았던 문화 분야의 기사를 쓰며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습기자로 활동을 시작하자 기사를 읽는 일과 직접 쓰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고민이 이어졌다. 단순히 흥미로운 소재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소재가 지금 시기에 다룰 만한 이야기인지, 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야 했다. 자료를 조사한 뒤에도 막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많은 정보를 모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글을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모든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오히려 핵심이 흐려지기도 했다. 기사는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적는 글이 아니라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골라 전달하는 글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 갔다.

취재원을 섭외하는 과정도 예상보다 어려웠다. 심층 보도 기사를 준비하며 외부 취재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메일을 확인했다는 표시도 답장도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쁜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커졌다. 다시 연락해도 괜찮을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결국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고, 추가로 연락한 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부분의 원고를 작성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답변을 기다리는 일조차 취재의 일부이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기사를 완성하기까지는 글을 쓰는 시간보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했다.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일부터 취재원을 섭외하고 문장을 다듬는 과정까지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없었다. 아직은 낯설고 서툰 일이 많지만, 직접 부딪쳐 보면서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 한 줄의 기사를 완성하기 데 필요한 질문과 확인의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시행착오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제보 및 문의 : chnews26@daum.net

사 설

역사에 대한 재해석과 왜곡의 경계

박정희 전 대통령 제47주기 추모식이 얼마 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이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유력한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수의 보수 정치인들이 참석했고, 대여 공세에 앞장서는 강경파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과 이진숙 의원이 추모사를 했다.

소위 '10.26 사태'로도 명명된 전직 대통령의 암살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발생했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2005년 개봉)이나 '남산의 부장들'(2020년 개봉)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이후 무려 18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가다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민주적인 제2공화국을 무너뜨린 원흉이며,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공화국'을 대신하여 소위 '유신 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압살한 장본인이었다. 후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소위 '체육관 선거'의 제도적 기반인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하고, 6년 임기의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조치를 통해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중앙정보부를 통해 동백림 사건 등을 고문 조작하여 체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그가 산업화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이자,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위로하던 따뜻한 지도자, 흉탄으로 배우자를 잃은 가련한 지도자로 미화하기도 한다. 학계에서도 일부 극우성향의 인사들이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에 덧붙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미화하기도 한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독재자에 대한 해석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건과 인물이 다면성이 있기에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자의적인 추정이나 특정 측면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특정인을 미화하는 것은 혐오와 차별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범죄에 가깝다.

민립대인 조선대의 역사를 왜곡하고, 설립자를 참칭하며 대학을 사유화한 박철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혹자는 그가 과오도 있지만 대학을 발전시킨 공이 크다며, 소위 '균형'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전제 군주'처럼 군림하며 대학을 족벌비리사학으로 전락시키고, 폭언과 폭행으로 교직원을 능욕하고, 학생처를 이용해 저항하는 학생들을 고문한 사실은 뒤로한 채, 박정희를 포함한 독재자들을 예찬하며 역대 권위주의 정부에 협력하여 학생 수를 늘리고 건물을 지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균형'이 아니라 '왜곡'일 뿐이다.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독재자를 구원자로 미화하는 행위는 역사를 왜곡하고, 또 다른 갈등과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데스크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인연



여 정 인 편집국장
duwjddls1022@naver.com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과 한 명도 빠짐없이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 수도 있다.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새 학기 반이 바뀌고, 사는 지역이 바뀌고,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이유로 관계가 끊어진 인연을 그리워한 적이 있는가? 한 번쯤 누군가를 그리워했다면, 이들에게 연락을 망설여본 경험은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관계를 시작하기에 망설이는 이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최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연과 연락이 끊긴 후, 13년 만에 다시 닿았다. 어릴 적 가장 친했던 친구였고 전학을 가게 되면서 끊겼던 인연이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친구와 연락할 길이 생겼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나를 기억할지부터, 연락해도 될지,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등 수많은 상상을 거쳤다. 하지만 여러 도움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었고, 끊겼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

시절인연(時節因緣)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이 적절하거나 결정적인 때가 돼야 이뤄짐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지만, 현대에서는 만남과 헤어짐에 저마다 시기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우리는 인연을 이야기할 때 운명을 같이 떠올리기도 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만나게 될 인연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말로 관계를 흐름에 맡기기도 한다.

관계가 멀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모든 관계를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이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손을 내밀 타이밍을 찾지 못해 멀어진 관계도 있다. 그렇기에 인연이 찾아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찾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연을 이어간다는 것이 쉬운 마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용기를 낸다면 바라던 인연을 마주할 수도 있다.

인연의 시작과 끝을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는 없으나, 멀어진 관계를 다시 시작할 기회까지 운명에 맡길 필요는 없다. 뜻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다. 상대방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을 각오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관계라면 그를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만큼 과거의 관계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연은 작은 용기에서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 우연으로 시작했어도 그 뒤의 이야기는 나의 선택이다.

낱/말/퍼/즐

치	한	보	조	화
개	형	선	이	김
은	국	대	인	교
대	문	둔	학	외
회	정	생	톨	상

1. 잇따른 해킹사고로 0000가 유출됐다
2. 지난달 23일 광주 00축제가 개최됐다
3. 사회적 관계망을 단절한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의 '히키코모리'에서 유래한 말은?
4. CCC의 정식 명칭은?

지난호 정답

선선한 가을

지난호 정답자

안우현(산업공학·3)
김아령(법학·4)

※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지운 뒤 마지막에 남는 단어들을 조합해 답을 찾아 학과, 학번, 학년, 이름, 핸드폰번호와 함께 11월 30일까지 chnews26@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다음 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개별 통보를 통해 투썸플레이스 교환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제38회 조대문화상 공모전



2026

10/20 TUE ▶ 11/20 FRI

공모 부문 및 분량

[시] ——— 1인당 3~5편 이상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논설/평론]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수필]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제출방법

조대신문 메일
(**chnews26@daum.net**)통해 제출
제출 서류 목록:
① 공모신청서 1부 (PDF파일)
② 공모작 1부 (한글파일)
③ 재학증명서 1부 (PDF파일)

공모대상

조선대학교 재학생

상금

부문 관련 없이 당선작은 25만 원,
가작은 5만 원(총 4개 부문)(시, 단편소설, 논평, 수필)

문의처

조선대학교 조대신문사(010-9649-2342)
조대신문 메일(chnews26@daum.net)

안내사항

1.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음
2. 표절, 도용 및 과거 공모전 출품 작품 수상 제외, 수상작으로 선정된 후 표절, 도용 및 타 공모전 출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함
3. 출품작의 표절, 도용, 초상권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필요시 수상 작품은 조대신문에 게재함

조선대학교 신문방송사